
 인천광역시		보 도 자 료		
		배포일자	2023년 3월 7일(화) 총 2매	
담당 부서	대기보전과	담 당 자	• 대기개선팀장 이정은 ☎440-3521 • 담당자 고은영 ☎440-3522	
사진(이미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봄철 고농도 초미세먼지 총력 대응 나서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점검 및 지원 강화 -
- 시민 체감도 향상을 위해 걷기 챌린지도 실시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해 3월 한 달 동안 초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총력대응은 △비산먼지 발생억제 △미세먼지 저감 및 저감을 위한 지원 △비상저감조치 강화 등 3대 방향으로 추진된다.

먼저 비산먼지 다량 발생 건설공사장 35곳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첨단장비 등 가용자원을 총 동원해 감시·단속을 강화한다.

또한, 항만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 부두 하역현장의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가동상황을 점검해 비산먼지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 밀집된 산업단지 내 대형배출사업장을 중심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봄철 영농활동 개시에 따라, 강화군과 옹진군을 중심으로 영농폐기물을 수거하고 민간불법배출감시단을 활용해 불법소각 방지를 계도해 비산먼지 발생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도로 비산먼지와 미세먼지의 제거 및 저감을 위해서는 수도권매립지 주변도로 등 집중관리 26개 구간의 도로청소차 운행횟수를 확대하고, 어린이집·노인이용시설 등 미세먼지 취약시설이 밀집한 집중관리구역을 운행하는 시내버스 50대에 미세먼지 흡착필터를 부착한다.

또한 미세먼지 저감정책에 대한 시민체감도 향상을 위해 시민참여 걷기 챌린지를 통해 목표달성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배출가스 조기폐차 지원 사업 대상을 기존 5등급 노후차에서 4등급 노후차와 건설기계(지게차, 굴삭기)로 확대한다.

한편 비상저감조치 시행시 배출량 감축 공공의무사업장의 배출량은 기존 15~20%에서 25~30%로 강화된다.

김인수 시 환경국장은 “매년 봄철은 한해 중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시기로 주요 미세먼지 발생사업장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취약계층 밀집지역에 대한 집중관리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감축 및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